



공급망 전쟁
독보적 기술력 갖춘
‘슈퍼 윌’ 기업 키운다
L1

metro®

Life

신세계푸드
이마트 자회사로
식품사업 재편
L2



하늘 위에서… 숲길 거닐며… 단지 안 두 가지 풍경 담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운정중앙역 동문 디이스트

푸른 하늘이 펼쳐진 화창한 여름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한 지 20분 만에 종착역인 운정중앙역에 도착했다. 역을 나와 새 아파트와 공사 현장이 이어지는 운정신도시 길을 10분가량 걸으면 ‘운정중앙역 동문 디이스트’가 보인다.

단지 앞 수변 공간에는 파란 하늘의 흰 구름과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물기를 따라 시선을 올리자 1205동과 1206동 꼭대기를 잇는 스카이브릿지가 가장 먼저 눈에 다가왔다. 두 건물 사이 허공을 가로지르는 조망카페는 커다란 문을 낸 듯한 모습이었다.

경기 과천시 동패동 운정3지구 A22블록에 들어선 운정중앙역 동문 디이스트는 지난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동문건설이 시공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0개 동, 642가구 규모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74㎡와 84㎡로 구성됐다. 모든 가구가 중형 면적으로 설계됐으며 지역난방 방식이 적용됐다.

단지에서 GTX-A 운정중앙역까지는 지도 상 약 559m로, 걸어서 10분 안팎이다. 1205동과 1206동 위로는 두 동을 연결하는 조망카페가 놓였다.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중 연결 공간으로, 단지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하거나 입주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커뮤니티시설은 휴식과 운동, 학습 기능을 두루 갖췄다. 작은도서관에는 성인 독서공간과 유아·어린이도서관, 열람실 2곳, 미디어실이 마련됐다. 운동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단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G.X룸이 들어섰다.

단지 안에는 시립이음어린이집이 조성됐고 인근에는 올해 3월 개교한 문향기초등학교가 있다. GTX-A 운정중앙역 주변 상업·문화시설과 운정호수공원, 삼학산 등 생활·자연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회백색 계열로 정돈된 외벽이 보인다. 창호와 난간도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으로 통일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 외벽 하부와 커뮤니티시설 주변에는 벽돌을 쌓아 올린 듯한 짙은 회색 마감재가 사용됐다. 밝은 상층부와 대비되면서 건물 아래쪽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모습이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주동 사이에 폭이 넓은 보행로가 이어진다. 길 양쪽에는 교목과 관목을 심었고, 원목의 그네형 벤치와 일반 벤치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입주민이 산책하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동선을 따라 작은 휴게공간들을 조성했다. 화단 바닥에는 흙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잘게 부순 나무껍질과 나무 조각을 넓게 깔아줬다. 잔디와 지피식물을 함께 심어 화단의 높낮이를 달리했다.



1 단지 내 두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 조망카페 전경. 2 정원 안쪽에 위치한 동화 속 장면을 연출한 조형물. 3 단지 내 휴식공간. 4 단지 내 수목.



운정3지구 642세대 공공분양 단지 동 연결한 스카이브릿지 카페 ‘눈길’

산책 동선 따라 휴게공간 곳곳에 배치 지형 활용한 공간 배치로 입체감 살려

다양한 높이 식물로 겹겹이 채운 화단 정원 사이 입체 조형물로 볼거리 더해 색다른 주제로 꾸민 색색깔 놀이터도

단지는 지형의 높이 차를 활용해 위쪽과 아래쪽 공간이 여러 층위로 나뉜다. 계단 아래쪽을 바라보면 두 건물 사이로 다음 주동이 한 채씩 겹쳐 보인다. 가까운 건물과 먼 건물이 차례로 프레임에 들어와 입체감을 준다.

단지 내부에서 바라본 스카이브릿지는 외부에서 볼 때보다 한층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주동 사이 아래쪽에 서면 건물 외벽이 양옆으로 높게 솟고, 구조물이 머리 위를 덮는다. 단지 곳곳의 차분한 석재와 녹지가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스카이브릿지는 높이와 규모로 시선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단지 내 휴게공간은 ‘정원 속 작은 집’을 떠올린다. 일부 공간에는 ‘티하우스’와 ‘베스트라운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반적인 아파트 정자처럼 지붕과 기둥만 세운 형태가 아니라, 흰색 틀과 삼각형 지붕, 넓은 유리창을 활용해 별도의 건물처럼 꾸몄다. 햇빛은 들어오면서도 나무색 천장 부분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형태다. 측면과 전면에도 유리창을 넓게 내서 안에 앉아 있어도 풍경이 보이도록 했다.

바닥은 주변 보행로보다 조금 높은 나무 데크로 설계했다. 흰색 구조물과 갈색 바닥, 짙은 나무색 천장이 따뜻한 분위기를 낸다. 휴게공간 주변에는 키 큰 나무와 낮은 관목을

여러 겹으로 심었다. 티하우스 바깥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입주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책로를 둘러싼 공간은 여러 높이의 식물로 촘촘히 채웠다. 원뿔형 침엽수와 소나무, 풀과 꽃을 겹겹이 배치해 작은 수풀처럼 보였다. 화단의 녹색 식물과 보라색의 꽃 사이로는 붉은 흙이 보인다. 정원 한쪽에는 흰색 동물과 어린이이, 커다란 꽃 조형물을 설치했다. 실제 나무와 야생화 사이에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출해 조경에 색감과 볼거리를 더했다.

놀이터는 공간마다 색상과 주제를 달리했다. 어린이집 앞의 ‘장단콩나무’ 놀이터는 숲속 나무를 타고 오르는 듯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바닥은 연두색과 짙은 초록색으로 주변 나무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파란 새를 형상화한 대형 놀이시설도 있다. 나무처럼 보이는 초록색 기둥과 동물 형상의 조형물을 활용해 동화 속 숲처럼 꾸몄다.

야외 운동공간은 근력운동 구역과 생활운동 구역으로 나뉜다. 한쪽에는 철봉과 평행봉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옆에는 인조잔디를 깔 아외 배드민턴장도 마련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극한 폭염에 프로야구 ‘올 스톱’…11일 오후 7시 재개
▲ 이정후, 5경기 연속 안타 ‘시즌 타율 0.303’… 팀은 텍사스에 완패 /사진 뉴시스

▲ 마린스키 전민철, ‘백조의 호수’로 韓 관객 만나…8월 14~23일
▲ “월드컵 매각 실수였다”… 사과한 인판티노, FIFA 회장직 유지

▲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대한축구협회 등 압수수색
▲ 크리스토퍼 놀란 ‘오디세이’의 흥행 물이…개봉 첫날에만 29만